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14기

가야학 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교 / 육 / 개 / 요

- 운영일시 : 2016.9.7.~11.16. 매주(수),
14:00~16:00(2시간)
- 횟 수 : 총 10회(강의 9회/ 현장답사 1회)
- 장 소 : 강당
- 내 용 : 삶에 깃든 인문학
- 수 강 료 : 무료(답사비는 참가자 부담)
- 수료기준 : 총 10강좌 중 70%(7강좌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답사 포함)

회차	일자	강의 주제	강사 및 소속
1	9.7.	고고학의 눈으로 본 고조선과 낙랑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	9.21.	삼국의 대표적인 고총들의 축조방식	조영현 대동문화재단연구원장
3	9.28.	공자, 늙음을 말하다	정천구 바카데미아 고전학자
4	10.5.	야성(野性)의 코리아	소재구 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5	10.12.	오감 활용의 명화 감상법 - 미술관·박물관과 친해지기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6	10.19.	답사	
7	10.26.	나무 : 인생을 바꾸는 삶의 태도	강관권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8	11.2.	우리 고장의 선비, 남명 조식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9	11.9.	문화유산(文化遺産) 어떻게 볼 것인가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10	11.16.	창원 다호리 유적의 재해석	임학중 국립김해박물관장

4 제 14 기 가야학아카데미


 목 차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 | | |
|--|-----|
| 1. 고고학의 눈으로 본 고조선과 낙랑 | 7 |
| 2. 삼국의 대표적인 고총들의 축조방식 | 23 |
| 3. 공자, 늙음을 말하다 | 45 |
| 4. 야성(野性)의 코리아 | 59 |
| 5. 오감 활용의 명화 감상법 - 미술관·박물관과 친해지기 | 91 |
| 6. 나무: 인생을 바꾸는 삶의 태도 | 127 |
| 7. 우리 고장의 선비, 남명 조식 | 143 |
| 8. 문화유산(文化遺産) 어떻게 볼 것인가 | 161 |
| 9. 창원 다호리 유적의 재해석 | 175 |

6 제 14 기 가야학아카데미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Part _ 1



고고학의 눈으로 본 고조선과 낙랑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01. 문헌사료에 나타난 고조선과 연구의 한계

고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라 하는데 주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국 시기나 수도의 위치 그리고 그 강역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특정해 줄 물질문화의 요소 등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와 관련된 당대의 기록이 너무 소략하고 관련 고고 자료의 확보가 미진하기에 때문이다.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기록한 것은 중국의 문헌인데 바로 『管子』와 『山海經』이다. 『관자』는 중국의 春秋時代 齊나라 재상이었던 관중이 남긴 말과 사상을 정리한 책으로 그를 숭상한 후대 戰國時代의 제나라 학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文皮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發朝鮮의 무역기사로 이해한다. 즉 이는 당시 고조선이 山東地域의 제나라와 모피교역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 평가되는 동시에 당시의 고조선이 지리적으로 요동지역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제나라의 중심지인 산둥과 그 對岸인 요동지역은 묘도열도를 거쳐서 해상 교류에 적합한 지역이다. 최근 산둥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 도끼와 청동검에 주목하는 연구가 제출되는 상황은 이러한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山海經』은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데 춘추시대에서 前漢代에 걸친 시기, 여러 지역에서 기술된 것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조선은 涿陽의

동쪽에 있다는 기술이 나오고 열양은 燕에 속한다고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이 燕과 접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고조선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史記』 蘇秦傳에 나오는데 遊說客 소진이 燕의 文侯(기원전 361-기원전 333)에게 조선과 요동이 燕의 동쪽에 있고 북쪽에 임호와 누번이 있다고 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서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중반 경에는 고조선이 中原國家의 外緣에 위치한 燕의 국세를 나타내거나 대외관계를 유지한 유력 他者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국시대 연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고조선을 드러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를 중심에 두고 기술된 『魏略』에 전하는 기원전 3세기 초 燕將 秦開의 東進 기록은 고조선을 한반도 서북한 지역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戰國策』에서도 燕의 동쪽에 朝鮮과 요동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여기서의 요동이 단순한 지역명인지 특정 정치체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燕의 세력권 밖으로 고조선과 요동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史記』 朝鮮傳의 기사는 주지하는 것처럼 위만조선과 漢의 전쟁기사가 중심인데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다만 왕검성의 위치를 둘러싸고는 洌水를 대동강으로 보고 이를 평양으로 보는 연구자가 많지만 요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평양에 왕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동강의 남안에서

발견된 토성리토성(낙랑토성)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였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대략 기원전 108년을 전후하여 漢의 군대에 의해 위만조선의 통치질서와 와해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朝漢戰爭’은 1년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다. 중국 측이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漢의 원정군이 개별 전투에서 제대로 이긴 적이 없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고조선 국가체제의 수준과 전쟁수행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전쟁에서 고조선이 패하게 되는 것은 내부 분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위만조선의 고지에는 낙랑군, 진번군 그리고 임둔군과 현도군이라는 漢의 군현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것이 漢四郡이다. 漢四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그 범위가 위만조선의 영역과 그 주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四郡 중에서 낙랑군은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자료로 보아서 평양일 가능성이 많지만 나머지 군현을 비정할 만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고조선 왕검성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後漢代 應劭의 『漢書』지리지의 기사도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이 책의 주에는 遼東郡 險瀆縣이 朝鮮王之 舊都라고 적어 두고 있다. 그리고 後漢 荀悅의 『漢紀』에도 朝鮮과 漢의 경계가 遼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기 고조선과 왕검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조선에 관한 가장 오랜 우리 기록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이다. 특히 『삼국유사』 古朝鮮조에는 『魏書』와 『古記』에 전하는 단군 왕검의 조선 개국을 다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古記」에 의하면 고조선이 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요임금 때 즉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 개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삼국유사』보다 먼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서 평양이 仙人王儉의 터라고 하였기 때문에, 평양에 단군 왕검의 고조선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는 고조선이 평양지역에 위치했었던 것처럼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헌에 의하면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던 것처럼 기술되기도 하였고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적히기도 하였다. 이미 조선시대 후기 학자들에 의해서 「고조선 재평양설」과 「재요동설」은 물론 이동설까지 제기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그 형태와 내용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어지고 있다.

고조선 이동설은 기원전 3세기 초 燕의 장수인 진개가 고조선을 침공한 것을 계기로 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녕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이해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 분포지역이 요녕지역이었다가 이를 계승한 세형동검문화의 중심지가 평양으로 바뀐다는 고고학적 현상과도 일견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선학들 중에는 세형동검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3세기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역으로 고조선 이동설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는 세형동검문화의 발생시점을 기원전 3세기에서 파격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세형동검의 출현이 요동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정가와자 유적의 비파형동검 연대(기원전 5,6세기 전후)와 멀지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燕國 수도인 연하도의 대형고분인 신장두 30호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면서 세형동검 기원전 3세기 설은 그 기저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연장 진개의 동진으로 세형동검 문화가 청천강 이남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세형동검을 탄생시켰다는 이해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고 일원,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의 분포지역 전체를 전기 고조선의 강역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천강 이남에서 일본열도까지 확산된 세형동검 문화의 분포범위를 후기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계승관계가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되는 것도 사실이며 고조선을 대표하는 물질문화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최근에는 청천강 이남에 널리 분포하는 전형적인 세형동검을 포함하여 요동지역 남단에서 특화된 결입부가 없는 세형동검, 그리고 검신의 상반부가 축약되는 길림과 장춘 지역 특유의 동검 역시도 세형동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비파형동검에서 파생된 세형동검의 지역화 현상인 것이다. 지역색이 인정되는 세형동검이 분포하는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한 토기가 바로 ‘점토대토기문화’인데 이는 이미 비파형동검단계에서부터 확인된다. 즉 정가와자 유적의 토기가 바로 점토대토기인 것이다.

이 점토대토기문화의 베이스에 연국에서 기원하는 새로운 토기문화가 결합한 것이 소위 세죽리-연화보 유형이기 때문에 문헌사료에서 전국시대 연국과 상호작용하는 단계의 고조선 기층

토기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상 위에서 살핀 것을 정리하면 문헌사료를 통한 고조선 연구는 그 기록 내용의 영성함으로 인하여 강역의 비정과 문화내용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조선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문헌사료에 기초한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고고자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검증작업이 대안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02. 한국고고학계의 고조선 연구현황

한국고고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다. 이는 한국고고학계의 정기간행물인 한국고고학보에 고조선을 전문으로 다룬 논문이 단 한편도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고고학회 다음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는 영남고고학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는 과거의 물질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의 학문적 특성상 고조선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고고학계의 근본적인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일까? 살피건데 고조선 문제를 고고학적으로 다루지 않는, 혹은 하지 못했던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사실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분위기의 형성배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연자가 판단하기로 이러한 연구경향의 형성배경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가 바닥에 흐르는 상황에서 당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낙랑군 설치 이전 古朝鮮과 관련된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1902년부터 고적조사를 주도했던 세키노의 경우 1904년까지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고조선을 기술하였지만 그 후 슬며시 이것이 누락되고 만다. 특히 1916년에 시작된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의 첫해 사업에서 古朝鮮이 완전히 빠지고 漢治郡 遺蹟이 조사의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고려시대에 만든 기자정이라는 유구 말고는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후 낙랑관련 고고자료가 쏟아지면서 낙랑군의 이미지를 증폭시켰고 이는 고조선이 자리를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해방 후의 전개이다. 해방 후 한국고고학을 이끈 김원룡은 먼저 낙랑군을 한국고고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하며, 다만 삼한사회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원룡 1986). 그런데 한국고고학에서 고조선을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그가 작성한 고고학 개설서의 시대구분에서 고조선이 없이 청동기시대의 다음에 초기철기와 김해시기를 배치시킨 점이 주목된다. 나중에는 김해시기를 원삼국시대로 바꾸고 이것이 삼국시대로 이어진다고 정리하면서 결국 古朝鮮을 다루지 않았다.

김원룡의 시대구분이 기본적으로 삼시기법에 기초한 것은 해방 후의 미국 유학에서 얻은 구미 고고학의 영향일 것이며 각 시대를

(考古)문화를 중심으로 살핀 것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수업을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의 고고학 관련 강의 전담교수가 후지타료사쿠(藤田亮策)였다. 그 외 일인연구자들의 조사 연구성과, 특히 우메하라스에지(梅原末治)의 저서 『朝鮮古代의 文化』을 참고하였음은 그가 쓴 책머리에서 읽어낼 수 있다. 원래는 우메하라처럼 그 물질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정치체인 낙랑군을 문화를 중심으로 첫머리에 서술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빼고 나니 초기철기에서 삼국시대의 사이가 애매해 진 것이다. 그 자리를 월삼국시대로 메꾼 것이다.

이후 한국고고학회의 정규 학술지인 『韓國考古學報』에서 古朝鮮 그 자체나 고조선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논문이 보이지 않는 것도 김원룡이 만들어낸 해방 후 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이나 연구방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국립 박물관에서 고조선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고고학회가 발행한 한국고고학 개설서인 『한국고고학강의』의 목차도 김원룡이 설정한 시대구분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도 고조선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김원룡의 인식과 정리가 미친 영향이라 판단한다면 과한 해석일까? 고고자료로 인지되는 문화요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이 중국문명과 상호 교섭관계를 맺는 것은 한사군의 설치를 통해서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역사관은 부지불식간에 해방 후에도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다. 아니 더욱 강화된 측면도 있다.

관련하여 평양지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목관묘나 목곽묘를

낙랑군 설치 후로 인식하는 다카쿠젠지의 낙랑고분 편년 안은 비교적 장기간 한중일 고고학자의 지지를 얻은 바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古朝鮮이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한국에서 유학하며 고고학을 했던 필자의 당시 학습환경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로 소급되는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기댄 야요이 연대관에 익숙했던 분위기도 반영된 것이다. 당시 일본고고학계의 야요이 역연대라는 것이 야요이 중기의 연대를 낙랑군 설치에 비정하여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漢式遺物의 상한을 대체로 기원전 1세기에 고정시킨 것이었다.

결국 대동강유역권에 낙랑군 설치 전에 전통적인 석관묘나 지석묘와 다른 무덤이 조영되는 시대적 배경 역시 낙랑군을 포함하는 한사군의 설치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후 특히 진·변한 지역의 물질문화의 변천을 평양이라 인식하는 낙랑의 그것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삼한사회의 발전이 출발부터 한군현의 설치와 궤를 같이한다는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낙랑고분문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글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어 유사한 연구 성과가 없던 한국고고학계에서 낙랑고분의 변천을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高久健二 1994). 평양지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중국식 유물의 상한연대를 낙랑군 설치 이후라고 판단한 것은 오수전, 혹은 기년 자료와 동반된 일부 재지계 청동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배경은 다르지만 영남지역의 연구자들이 주도했던 「瓦質土器論」이나 그 이후의 철기연구자들이 당연한 사실로

인식했던 단조철기 낙랑군유입설 등등도 모두 낙랑군의 설치를 중요한 변화의 동인과 기준 역연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古朝鮮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漢帝國과 전쟁을 거쳐 군현이 설치되었던 南越이나 西南夷 등의 경우 郡縣 설치 이전에 이미 많은 秦漢의 물질요소가 이입되는 현상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왜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경우만 해석을 달리해 왔는지 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으며,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고조선이 중계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섭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史記』朝鮮傳에서 드러나듯이 위만조선이 漢에서 병위와 재물을 공급받은 것은 外臣으로서 주변국의 對漢 관계를 관리하거나 대리하는 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위만조선대에 고정시킬 필요도 없다. 호남지역의 주조철기류와 상림리의 중국식 동검은 그러한 전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유물이며 최근 이러한 자료는 늘어가고 있다(정인성 2013).

03. 한국 고고학계의 고조선 연구 동향과 제언

최근 한국고고학계에서도 그간 낙랑 물질문화 연구에 쏟렸던 관심에서 차츰 벗어나 고조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가는 형국인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앞으로 고고학이 실천할 수 있는 고조선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고조선에 대한 오래된 연구에서 노정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고학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로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강역비정과 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고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 개최한 「동아시아의 철기문화와 고조선」이라는 제목의 국제학술대회는 그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2). 학술대회는 철기라는 고고자료의 특징과 생산과 유통 상황을 분석하여 고조선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기획되었으나 결국 종합토론에 나선 발표·토론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한 것은 (후기)고조선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관련 연구의 진전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비단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일본열도의 수입 철기 유통시기와 주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상속의 고조선(구체적으로는 衛滿朝鮮)의 철기를 거론하기도 한다.

결국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고조선의 고고학적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후기고조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국문명과 상호작용하는 외부세계로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국시대 燕國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위략』등의 문헌에서 보이는 朝鮮侯가 稱王하는 기원전

4세기대 이후의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漢四郡 設置 以前の 衛滿朝鮮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판별해 수집하는 것이다. 최근 樂浪郡에 대한 考古學的인 실체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진전된 상황에서 이와 구분되는 그 이전의 물질문화를 가려내어 정리한다면 고조선 연구는 분명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燕國의 외부세계로서 고조선을 고고학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시대 燕國 문화의 전형을 고고학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燕山山脈 以南의 燕國 문화의 특징을 토기와 기와, 금속기 등에 초점을 두어 추출하고 이들 문화요소의 확산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중원의 문화요소를 배제하고 검토되었던 고조선의 물질문화 확인 작업과는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중국문명의 외부에서의 접근이었다면 이는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접근하여 그 경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경계란 공간적인 의미에 머무르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변천하는 물질문화의 경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연 설명한다면 燕 昭王代의 古朝鮮 侵攻과 5郡 設置 및 長城築造 기사를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燕國의 중심인 燕山山脈 以南의 고고학적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성과를 바탕으로 燕의 중심지에서 확산된 燕文化의 특징을 우선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燕長城의 축조와 영역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戰國時代 燕國文化의 특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시기 戰國 諸國의 문화와 구분되는 燕國文化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접한 中山國과의 차이, 齊나 趙의 물질문화와 구분되는 물질문화의 속성을 추출해야 한다.

燕의 수도였던 지역의 관련 유적 특징과 출토유물을 우선 정리하고, 연산산맥에 면한 지역의 동시기 유적들의 특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경주변의 燕國 관련 유적, 易縣의 연하도 유적 등이 우선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산산맥 이남의 연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면 중국학계에서 주장하는 燕長城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산산맥 이남에서 인지되는 燕의 문화요소가 확산되는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연장성의 주향과 범위를 재검토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중국학계에서는 연 소왕때 진개의 동진을 계기로 築造한 長城이 阜新을 거쳐 鐵嶺과 심양 인근을 지나 압록강을 가로질러 청천강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내몽고와 부신에 이르는 구간에는 다수의 성곽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성이 중국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燕 昭王때에 축조된 것인지는 개별 성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증이 뒤따라야 한다.

생활토기의 특징과 기와, 그리고 금속기 유물의 성격파악을 통해서 개별 성곽의 시기와 축성주체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확인되는 취락유적과 분묘유적을 집성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Part _ 2



삼국의 대표적인 고총들의 축조방식



조영현

(대동문화재연구원장)

삼국시대 중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대거 축조된 시기가 있었다. 그 때는 분묘가 개인은 물론 집단내 위세의 상징이자 일종의 계세사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다. 고분의 규모가 클수록 당시 문물과 사회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다. 특히 거대 고층 자체가 고대 토목공사와 건조물의 축성기술의 이해하는 일차 자료이므로 삼국의 대표적인 예를 선정해서 구조와 축조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集安 將軍塚

장군총은 1만여 기의 대소 고분을 지닌 집안의 고구려고분군 중에서 축성재의 가공, 구조 및 기술이 가장 발달된 적석총이어서 東方의 金字塔으로 불린다. 한 변이 30m급이고 축조기술상 고구려 적석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총은 正方形의 7단 階段式 積石高塚이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적석총들은 臨江塚, 七星山871號墳, 西大塚, 千秋塚, 太王陵으로 모두 한 변이 50m급에 이르는 정방형 계단식 적석총이다. 이에 비해 장군총은 비록 넓이는 크게 뒤떨어지지만 높이가 거의 같은 이른바 정형의 고총형태를 지니며 시기적으로는 가장 늦게 축조되었다.

비록 정방형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底邊의 길이가 前(남서) 30.75m, 後(북동) 31.25m, 左(서북) 31.10m, 右(동남) 30.50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좌·북변이 석재 간에 벌어진 틈새가 나있고 부분적으로 배부른 상태이므로 원상에서 약간 벗어났음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서 전·우변은 반듯하고 안정된 상태이므로 거의 원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변이 우변보다 25cm가 길다. 제1단 계단석 아래에는 땅을 파서 설치된 地臺石도 구비되었는데, 그것도 전변이 우변보다 10cm가 더 길어 윗면의 제1단 계단에서 보이는 길이 차이와 유사한 양상이다. 제1계단의 평면률(길이÷너비)은 0.992이다.

장군총의 축성재는 截石材를 반입하여 다듬고 또 마연한 1,177개의 階段 邊部와 중앙부의 橫穴式石室用材, 내부의 충전적석용 川石,

외증지붕 바탕용 점토와 석회, 임시작업용으로 대량의 흙이다. 인력 위주였던 당시의 이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재 조달을 포함하면 그 일이 작은 石城 하나의 축성과 견줄 정도였을 것이다. 아울러 거기에는 치석 기술은 물론 그것으로 결구한 높은 수준의 축조기술(설계와 시공기획 등)이 필요하다.

7단의 각 계단은 면적의 等間隔 縮小, 遞減式 높이로 설계했다. 그리고 각 계단의 개별 석재들은 첫째로 아래 것보다 위의 석재가 상대적으로 前面 길이가 짧고 두께가 얇다. 둘째로 표면이 경사진 斜邊石, 셋째로 사면 경사도는 위쪽 석재보다 아래쪽 석재가 완만한 단면 ‘八’자형이다. 넷째로 아래쪽 석재의 상단 가장자리에 밀림방지턱 구비, 다섯째로 밀림방지턱 두께가 대개 10cm 내외인데 비해 제1계단의 하단석만 근 두 배로 유난히 두텁게 만들었다. 여섯째로 밀림방지턱 안쪽을 경사지게 함으로써 위의 석재를 쉽게 엮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단 자체의 중첩상태는 자연스럽게 고구려 성벽 하부에서 적용된 특유의 내물림 석축기법과 유사한 맥락을 이룬다.

제1계단의 네 면에는 각기 대형 支撐石 3매씩 배치함으로써 바깥으로 배부름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했다. 각 면의 중간에 1매를 두고 양측 모서리 가까이에 1매씩 등간격으로 두어 모서리부분의 안정에 치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축조 이전의 선행작업은 변부용 절석과 반입 및 가공, 내부 충전용 천석의 반입, 분정시공용 점토재나 석회의 반입, 분구 축조과정의 작업로와 분형

지지용의 임시 토재 반입일 것이다. 분구 축조과정의 제1단계는 제1~제3 계단면, 제2단계는 중앙부의 석실 및 그와 연계된 제4~제7 계단면, 제3단계는 분정시설이다.

제1단계 중의 선행공정은 밀림방지턱을 갖춘 地臺石 시공이고, 이어서 본격적인 축조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분구의 중앙부와 변부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시공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범위를 분구의 내구, 중간구, 외구로도 부를 수도 있다. 중앙부는 제2단계에 축조할 석실 범위에 안정된 기반층 구축을 위한 절석재 위주의 축석으로 추정된다. 변부는 지대석 윗면에서 치석재를 조립축조하면서 중앙부와 변부 사이에는 주로 천석을 채워쌓았다. 각 계단별 위로 향한 축차적 축성과정은 水平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단 중앙부에는 넓은 가공판석을 깔아두어 다음 단계에 석실의 床面으로 삼았다. 이때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3m로, 그 윗면이 제2단계 범위의 바탕이 되고 전체 모양은 나지막한 方臺形을 이룬다.

제2단계는 한 변 22m, 높이 6.3m인 방대형 윗면에서 중앙부에 橫穴式石室을 제4~제7 계단의 변부 조립축석 및 그 사이에 천석으로 충진적석하였다. 석실은 길이 5.43m, 너비 5.50m, 높이 5.40m로 삼국 최대이며 그 중심은 분구 중심에서 약 30cm 가량 뒤쪽에 두었다. 正方形(실제는 미약한 橫長方形) 평면형태와 네 벽체 상단의 평행고임식 천장부를 지녔다. 벽면은 미세한 내경식이며 각 면석에는 석회물당하였고 바닥 위에는 부부용의 관대 2대가 좌우로 나란하게

설치되었다. 천장 윗면은 제7계단면 변부 윗면보다 10cm 높다. 이 단계의 축조 높이는 5.2m이므로 지면으로부터는 11.5m에 이른다. 이 면이 셋째 단계의 바탕면이고 제1단계면보다 훨씬 좁고 높아진 方臺形을 이룬다. 석실 천장부에는 무려 120여 톤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천장석 1매를 올려놓았다. 변부의 치석재 중에서 최하단의 가장 큰 것이 22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굉장함을 알 수 있다.

제3단계는 전후 13.5m, 좌우 13.8m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봉토처럼 남아 있는 성토층과 주변에 기와가 출토되었다. 종래에는 건축물이 시설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중국 戰國時期의 中山陵 등의 殿閣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토 후 외즙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토층, 계단석 주연의 열 지은 작은 구멍들, 대량의 기와 출토, 기와의 ‘小’魚‘十’申(혹은 甲)‘大’(혹은 犬)라는 글자와 부호, ‘二’‘六’ 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鐵鏈 출토 등을 분정시설의 요소들로 들 수 있다.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분정부에는 성토면의 표면에 사모지붕처럼 사방으로 경사지게 만든 외즙지붕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정부 시설의 완성 후 각종 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변부의 支撐石, 주변부의 鋪石과 暗渠, 약 30m 떨어진 뒤쪽에 祭祀臺와 陪塚들을 두었다. 배층 규격은 한 변이 9.22m로 소형에 지나지 않으나 第1陪塚은 형태, 구조부위, 석재, 축조방식 등이 主墳과 흡사하다. 第2陪塚도 지탱석 매수가 한 변 3매씩이라는 점은 역시 주분의

지탱석 양식을 그대로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移都한 상태이지만 집안은 고구려의 副都 혹은 別都로서 그 위상은 상당했을 것이다. 장군총은 부도인 집안의 최고실력자가 안장된 최고수준의 적석총으로 보고자 한다.

02. 平壤 (傳)東明王陵

長壽王陵의 實墓로 보이는 평양시 역포구 용산리(구 진파리)의 (전)동명왕릉은 한 변 22m, 높이 8.15m인 정방형 基壇封土墳이다. 내부의 횡혈식석실은 길이 4.18m, 너비 4.21m, 높이 3.88m로 대동강유역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이 고분의 배후에는 직경 30m급 고총 및 화려한 벽화가 있는 대형 횡혈식석실분(종래의 진파리고분군)을 위시한 여러 고총들이 배열되어 있고 전방 코앞에는 대규모인 定陵寺가 발굴 조사되었다. 석실은 집안 장군총의 그것보다 규격은 약간 줄이고, 천장부를 아예 돔으로 만들어 천장석을 최소화했다. 입지, 장군총 계열의 구조, 배총군의 내용 및 축조시기, 黃色美粧面에 장식용의 천 송이 平面蓮花,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이 고분은 고구려 평양시기를 이끌고 419년 沒年인 피장자가 安葬된 長壽王陵으로 판단되었다.

기단 아래에는 땅을 파서 기초석을 두었는데, 이는 장군총의 지대석과 모양만 다를 뿐이다. 장군총의 제1계단을 빼닮은 기단의 석재는 석회암이며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큰 석재를 배치하였다.

두께 50~60cm인 기초석의 상단에는 높이 20cm, 너비 30cm의 비교적 큰 밀림방지턱을 갖추었다. 기단은 현재 2층 정도만 확인되지만 원래는 3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의 하부 기단석의 두께는 평균 90cm, 상부 기단석 두께는 평균 60cm로 위쪽 석재가 아래쪽 석재보다 두께가 얇다. 현재의 기단 높이는 적어도 150cm 이상인데 3층 기단석을 고려하면 그 높이는 200c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을 갖춘 대동강유역의 고구려 대형분은 漢王墓, 湖南里 四神塚, 龍岡大墓이지만 그 고분들의 기단석들은 (전)동명왕릉의 그것과 달리 대형의 치석재가 아니다. 평양도읍기의 전반기 대형분에만 적용된 이러한 기단은 계단식 적석층에서 무기단 봉토고층 일색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그 과도기의 최고급 대형봉토분에만 적용되었다. 그 자체에도 초기의 정형과 달리 점차 형식화되었다.

이 기단에 적용된 기법은 첫째로 하부의 기초석(지대석) 구비, 둘째로 밀림방지턱 구비, 셋째로 상부석은 하부석보다 안으로 25cm가량 물린 내물림 축석상태, 넷째로 하부석 두께보다 상부석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게 만든 것을 쌓은 이른바 遞減式 築石, 다섯째는 분구의 네 모서리에는 가장 큰 석재를 배치하여 봉분의 안정 효과를 높이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기단석으로 둘러진 안쪽 공간의 기반을 이루는 성토면의 높이가 1.3m로 주변부의 기단 높이 2m 내외보다는 낮다. 기반성토층은 돌을 섞은 흙과 숯을 섞은 흙을 교대로 하여 다섯 차례 반복하였는데, 최하부층에는 큰 돌을 섞어 두께가 두껍게 하였고 그 위로 올라

갈수록 작은 돌을 섞어 조밀하게 다짐성토하였다. 그럼에도 석실 네 벽면의 길이가 최대 9cm 차이가 나고 부분적으로 약간 흰 것은 비록 견고하게 다짐하였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약간의 침하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본격적인 봉분 성토층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으나 발굴조사에 참여한 어느 북한학자는 기단석 윗면에 기둥을 세워서 봉토를 감싸는 殿閣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전각이라면 그 천장 밑면 높이는 대략 7m 이상, 한 변이 20m 내외에 이르는 정방형의 高大한 목조건물이 되어야 한다. 그만한 기와지붕 건물이 되려면 기둥은 적어도 직경 1m 이상의 대형이고 그것을 지탱할 주초석 혹은 그 밑 부분을 수용할 대형 홈이 나있는 기단석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요소들은 없을 뿐 아니라 기단 상단의 석재 크기로 보아 이 고분에 전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분정 표면 밑의 봉토 중에 일정범위로 기와를 깔았을 가능성은 고려되지만 그것도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없다.

석실은 평면형태가 길이 4.18m, 너비 4.21m, 높이 3.88m로 평면율 0.993으로 정방형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세밀히 보면 미세한 尙장방향이다. 기반성토층 윗면에는 두께가 17cm와 25cm인 넓은 판석을 床面石으로 깔고 그 위에 축벽하였으며, 현문부에는 양쪽 여닫이문의 축을 끼우는 문 활과 중방 용도의 이맛돌 및 地枋石이 구비되었다.

연도는 길고 양벽 하단에 작은 壁龕이 나있으며, 석벽을 갖춘 긴 묘도는 석벽시설로 보아 앞쪽이 연문부 쪽보다 너르다. 봉분을 완성한 다음에는 장군총 등의 포석시설처럼 약 5m 범위에 걸쳐 동글납작한 돌로 鋪石하였다. 암거 등 주변부의 배수시설은 보이지 이때에 이르면 고분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이미 사라졌음을 말해준다. 이 고분을 기준으로 고구려 고분은 봉분 안에는 방 하나로 통일되는 이른바 후기 고분의 시기로 된다.

03. 公州 武寧王陵

삼국시대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왕릉인 무령왕릉은 남향 구릉의 경사면을 ‘ㄴ’자형으로 파내고 벽돌로 석실을 고층으로 성토한 橫穴式塼築墳이다. 천장부는 玄室과 羨道가 모두 터널형이며 벽돌 중에는 터널형 천장부를 구성하기 위해 梯形塼도 포함되었다. 봉분은 지름 20m 내외의 圓墳이며 높이는 玄室 바닥면에서 7.7m, 경사 위쪽에서는 2.7m이다.

부식토층을 제거하고 쌓은 봉분의 기층 성토재는 砂質山土에 石灰를 섞었다. 그 위로는 주위 일대의 황갈색의 일반성토재로 성토하면서 玄室과 羨道の 측면에는 경사진 構築土層이 적용되었다. 석회혼합토는 이미 5세기 중엽의 장군총에 이어 5세기 말경의 (전)동명왕릉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전의 고구려 최고급 고층에서 적용된 바 있다.

무령왕 부부가 안장된 玄室은 길이 4.20m, 너비 2.72m, 높이 3.14m로 평면비 1.544인 장방형이다. 바닥에는 먼저 암층을 평탄하게 깎아내고 벽돌을 두 겹으로 깔되 상부 벽돌을 샷자리 모양으로 배치한 床面施設을 갖추었으며, 그 과정에는 석회가 사용되었다. 바닥에는 현문 쪽 1.05m만 남기고 나머지를 全面棺臺로 만들었는데, 전면관대 아래쪽 암층은 아예 높은 상태로 평탄하게 깎았다. 축벽은 벽돌을 4平1豎로 하고 대부분 空積法으로 되어 있으나 간간이 석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터널형 천장의 벽돌 이음새 전체에 석회가 사용되었다.

벽면 중에는 작은 寶珠形 燈龕 5개가 배치되었다. 후벽에 1개, 좌·우벽에 각기 2개씩인데 등감 주위에는 火焰文이 그려져 있고 윗면에는 그늘음이 나있다. 등감 안에는 심지가 고착된 白磁 燈臺이 있으며, 등감 아래쪽에는 살창처럼 벽돌을 배치하여 생전의 창문 모양을 표현하였다. 벽돌의 표면에는 도안화된 蓮花文과 忍冬唐草文이 시문되었는데, 이러한 연화문 도안은 중국의 南朝에서 유행한 것이며 당시의 백제 절터에서도 출토되므로 중국 남조와 웅진기 백제의 문화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암벽 중앙의 羨道는 길이 2.90m, 너비 1.04m, 높이 1.45m이고 바닥에는 현실의 그것처럼 벽돌로 샷자리문양이 되도록 깔았다. 벽면과 천장면의 전축상태는 현실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양상이지만 八瓣蓮花文은 보이지 않는다. 현문부의 연도 천장부에는 이맛돌처럼 벽돌 2매를 드리웠다. 바닥에는 暗渠 행태의 塼築 排水溝가 설치되었다. 羨門부의 터널형 천장은 2重으로 구축하였고

그 좌우로는 높이 3m인 수직의 塼壁을 구축하였다. 수직 전벽에는 쓰다가 남은 破塼들과 舞文塼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는 6호분의 錢范文塼과 동일한 것이 다량 포함되었다. 한편, 연문을 폐쇄한 閉鎖塼은 3단까지 3平1豎로 배열하면서 석회를 사용했고 그 위로는 공적법으로 쌓아 막았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3단까지는 파전과 석회를 덧붙여 쌓아 보강하였다.

연도 앞으로 낸 墓道の 바닥면은 연도 앞에서 3.47m까지는 평탄하지만 그 앞으로는 경사지게 내려간다. 연도에서 나온 전축 배수구는 이 묘도를 통과해서 경사 아래쪽으로 9.3m까지 내려간다. 연도를 제외한 배수구의 길이는 18.7m에 이른다.

04. 羅州 伏岩里3號墳

나주시 다시면의 영산강유역 충적지에 조성된 복암리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제3호분은 분구 직경이 동서 38m, 남북 42m, 높이 6m에 이르는 方臺形이다. 분구 조성의 첫 번째 단계는 전면 중간에 위치한 '98석실의 축조와 연관된 하부 성토층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 위에 추가성토와 敷石 그리고 축조시점이 다른 橫穴式石室 등 적어도 41기 이상의 매장시설이 조성되었다. 즉, '96석실 조성단계에서 시작해서 백제 말기에 이르기까지 150여 년간 계속해서 묘가 들어섬으로써 제3호분의 분구 자체가 하나의 단위고분군을 이루었다.

초축된 '96석실 안에는 재지 고유의 옹관들이 들어 있어 옹관분에서 석실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묘제 양상을 보인다. 그 뒤로는 백제 중앙의 扶餘型 지하식 황혈식석실이 적용되었다. 다만, 반지하식이고 목관이 구비된 제1, 제2호 석실은 경남 서부지역에서 유행하는 가야묘제가 전래된 것이다. 황혈식석실들은 2기 혹은 3기가 짝을 지어 근접된 점은 피장자들의 친연성(부부 혹은 형제?)를 시사한다. 이 고분도 '96석실묘 분구 표면의 葺石, 단면층위, 분정부의 부석에서 구획 작업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96석실분 분구 표면의 층석 범위는 남-북 8m, 동-서 8.5m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남-북 9.6m, 동-서 8.5m의 타원형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토층 하단 범위는 주축방향으로 약 14m로 추산되므로 북단은 분정 부석의 중심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층석범위의 구획은 방사상 12구간이며 거기에는 석재의 大小, 석재 배치의 精粗 혹은 多少와 그 경계의 列狀 유무 및 구획석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96석실분의 하부 성토층 북단은 후술할 분정부석의 중심과 거의 일치한다. 즉, 이 석실묘의 축조범위 북단을 기준해서 방대형 성토범위의 중심이 되도록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정 부석은 방사상 18구획이며 그 중심은 방대형 분구의 중심이며, 아울러 '96석실분의 성토층 북단 지점과 일치한다. 제3호분 분정 부석도 석재의 大小, 석재 배치의 精粗 혹은 多少, 그 경계선상의 列狀 배치 유무 및 그 길이의 長短 그리고 구획표시석 등이 확인되었다.

'96석실분의 규모와 위치, 북암리3호분의 방대형 분형 형성 그리고 분정 부석은 비록 별개의 시점으로 이루어졌으나 각각의 범위와 중심 등으로 보아 일련의 계획성에 따라서 시공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부석의 잔존상태를 통해 각 매장시설들의 조성된 상대적 순서 파악에도 유용하다.

05. 慶州 皇南大塚

황남대총은 신라 왕경인 경주의 중심고분군내 봉황대고분 및 서봉황대고분과 더불어 신라는 물론 삼국의 최대분이다. 이 고분은 선축 南墳과 후축 北墳이 연결된 이른바 표형분으로 全長 120m, 높이 22.24m(남분)·22.93m(북분)인 동급의 高塚이다. 천마총은 황남대총보다 봉분은 작으나 주체부(목곽)의 규모는 뒤떨어지지 않은 최고급 고총이다.

이들 3기의 고총은 각기 木槨·積石·封土로 구성된 전형적인 積石木槨封土墳이다. 護石과 적석부의 密封 그리고 봉분 표면의 被覆이라는 신라의 대형 적석목곽봉토분이 갖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적용되었다.

南墳은 봉분 직경이 82m인 圓墳이며, 주체부는 지상식의 長方形 主槨과 副槨이 T자상으로 배치된 主副槨式이다. 주곽은 길이 6.50m, 너비 4.10m, 높이 3.50m로 평면적이 26.65㎡이다. 주곽 안에는 길이 4.7m, 너비 2.3m, 높이 1.8m인 내곽이 설치됨에 따라 내외

2중곽 구조이면서 내곽은 실내곽의 의미를 지닌다. 축조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고분 축조과정으로 첫째는 수평의 얇은 基層盛土, 둘째는 木槨과 木架構를 설치하고 측부를 따라 제1차 적석한 뒤에 그 주변부의 성토 및 護石 설치, 셋째는 被葬者를 안치한 다음 제1차 적석면 위에 제2차 적석 및 그 주변부 성토, 넷째는 본격적인 봉분 성토, 다섯째는 봉분 표면의 피복성토이다.

봉분의 규모가 굉장하므로 그 만큼 수많은 인력과 축조방식 및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 불가결하였을 것이다. 이 고분은 적석부와 호석 및 봉토에서 이른바 방사상 區劃築造方式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45개 단위로 작업을 분담하기 위한 각각의 경계부분에는 식별에 용이하도록 잔자갈이나 일반 성토재인 황갈색토와 다른 이질토를 놓았다.

北墳도 직경 80여 미터인 원분으로 남분과 동급이다. 남분의 북편 호석을 포함한 상당부분의 봉토를 제거하고 거기에 붙여 축조한 이른바 切土後 連接方式을 적용하여 전체가 표형분이 되도록 했다. 주체부는 지상식의 長方形 木槨 하나만 설치된 單槨式이다. 길이 6.80m, 너비 4.60m로 넓이가 31.28㎡이므로 남분 주곽보다는 4.63㎡(17%)가 더 크다. 그러나 남분에는 부곽이 별도로 구비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내부공간의 면적은 줄어들었다. 축조시기는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황갈색 被覆層은 봉분을 쌓는 과정에서 동시에 쌓았으며, 봉분 전체가 방사상의 구획성토방식이 적용되었다. 방사상 구획의

각 경계에는 부식토와 자갈이 배치되었고 그 중앙에서는 자갈이 집중된 상태를 보인다. 구획 경계를 기준하여 양측 구역의 성토재가 다른 이른바 異質盛土材 혹은 거기에 포함된 자갈의 크기만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 구획 수는 선축된 남분보다 적은 32구획 내외로 추정된다.

06. 慶州 天馬塚

봉분은 직경 47m, 높이 12.7m인 圓形이며 축조시기는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주체부도 지상식의 長方形 木槨 하나만 설치된 單槨式으로 규모는 길이 6.60m, 너비 4.20m, 높이 2.10m, 평면적 27.72m²이다.

목곽의 면적이 황남대총의 남분 주곽보다는 작지만 같은 단곽식인 북분의 목곽보다는 약간 크다. 그럼에도 봉분은 높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넓이도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내부와 달리 외부 규모의 축소화가 진행된 고총이며, 축조방법상 4m까지 盛土와 積石이 수평식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으로 알려졌다. 방사상 구획은 호석과 성토층에서 함께 확인되었다. 각 구획 경계부분의 호석에서는 폭의 狹寬, 축석상태의 精粗, 성토층의 黑色粘土帶 및 異質盛土재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는데, 방사상 구획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07. 高靈 池山洞73號墳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읍내 池山洞古墳群의 제73호분은 목곽묘에서 수혈식석실 고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중첩양식을 보여주는 고총이다. 즉, 내부에는 종전과 같은 목곽이지만 거대한 봉분은 다음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총형태를 보인다.

봉분은 장경 23m, 단경 22m, 잔존 높이 3.4m이다. 주체부 묘광은 장축 10m, 단축 5m로 평면율 2.0인 장방형이며 깊이는 3.3m 내외로 한강 이남의 목곽묘 묘광은 물론 어떤 무덤의 묘광 중에서도 가장 깊다. 주곽 크기는 길이 5m, 너비 2.1m, 높이 2.2m이다. 그 서쪽에 1m 떨어진 직교 방향의 부곽은 길이 3.7m, 너비 1.7m, 높이 1.8m로 길이·너비·높이에서 주곽보다는 작고 낮다. 이 고분은 특히 다양한 순장처가 밝혀진 점이 특히 주목된다. 主槨 안의 3인, 부곽 안에 2인, 묘광과 주·부곽 사이의 충전부에 5인, 봉토 중의 1인이 확인됨으로써 적어도 11인 이상이 순장되었다. 주·부곽에는 순장인용 목관이나 석곽이 없으나 묘광 안과 봉토 중에는 석곽을 설치했다. 원래 순장석곽은 대가야 순장고분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그것이 이 고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고분내 순장인 또는 순장곽 수는 동일 시기의 고분(특히 봉분) 규모와 거의 연동된 상황이다. 가장 많은 순장곽은 32기가 설치된 제44호분이고, 묘광 안의 가장 많은 순장곽은 9기가 설치된 제75호분이다.

축조과정은 첫째로 자리를 정지하고(墳底)粘土床 시공이다. 둘째로

묘광 굴착토로 묘광 어깨선에서 봉분 변부 또는 그 가까이까지의 두께로 득(堤狀盛土層)을 쌓되 부분적으로는 서편의 土留石築·敷石 그리고 제상성토층의 안측면과 거기서 이러지는 광벽 상부의 粘土美粧 시공이다. 셋째로 墓壙 床面の 敷石 후에 주·부곽과 그 주변부의 순장곽 3기 설치 및 여분공간의 充填築石이다. 넷째는 피장자·순장자 매장 후 목개, 석개를 하고 초분류를 섞은 점토로 밀봉하였다. 다섯째는 묘광 상부의 불명시설 및 전체 충전으로 묘광내 작업은 종료된다.

여섯째는 득 안쪽의 중앙부 충전성토, 일곱째는 득 바깥쪽의 성토 및 순장용 석곽 1기 축조 및 매장이다. 여덟째는 전면적인 수평을 맞추기 위한 높이 보완용 성토를 통해 전체가 타원형 토대상의 기층을 이룬다. 그 면의 서편 부석 및 의례를 한 다음 아홉째는 본격적인 성토를 시작하면서 제4단 호석과 일부 방사상 구획석렬 배치이다.

08. 松鶴洞1號墳

小伽倻의 중심지로 알려진 고성읍내에 위치한 松鶴洞1號墳은 圓墳 3기가 남-북으로 연결된 連接封墳으로 밝혀졌다. 선축된 남편의 1A호분은 5세기말 6세기초, 중축된 북편의 1B호분은 6세기 1/4분기, 후축된 중간의 1C호분은 6세기 중엽의 축조시기로 보인다.

1A호분은 단절형 주구가 있으며 봉분을 높은 대 모양으로

성토한 다음에 세장방형 豎穴式石室을 축조하고 다시 얇게 성토한 이른바 墳丘式 盛土墳이다. 이 석실 주위에는 추가로 11기의 수혈식석실 혹은 석곽들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에는 소형 陪葬槨들도 포함되었다. 초축 석실의 규모는 길이 8.25m, 너비 0.99m(동)~1.09m(서), 높이 1.30m로 전형적인 세장방형에 해당한다.

1B호분은 긴 연도를 단 세장방형 橫穴式石室로 석축면의 점토미장 후 다시 酸化鐵로 塗布하였다. 지면을 고른 뒤에 축조한 석실은 길이 6.40m(좌)~6.9m(우), 너비 2.05m내외, 높이 1.67m로 대형에 해당한다. 선축된 1A호분 석실의 세장방형이 짧아져 이 단계에서는 장방형으로 변모되는 과도기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재지계, 대가야계, 신라계, 영상강유역 등의 토기들이어서 피장자는 국제적인 물류거점의 역할과 관련된 소가야의 유력자로 추정되고 있다. 두 고분 사이의 1C호분은 장방형 횡혈식석실이다. 지면을 고른 뒤에 축조한 석실의 규모는 길이 5.56m, 너비 2.55m(전벽)·2.75m(후벽)인 장방형이며 전벽보다 후벽이 20cm 너르다. 1B호분 석실보다는 길이가 짧아진 장방형이지만 그 뒤로 크게 유행된 전형적인 장방형보다는 아직도 긴 편이다. 높이는 적어도 2.76m 이상의 높인데, 그 형식은 양 장벽의 내경도로 보아 맞조임식이거나 터널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유물 중에는 대가야계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